

조직의 안전문화와 불안전행동의 상관관계에
관한 연구 (Research on the correlation between
unsafe behaviors and organizational safety
culture)

김윤화[†], 김윤홍¹, 이승욱¹
김윤화안전문화연구소; ¹삼성SDI 여수사업장 안전환경그룹
(yunhwa_kim@naver.com[†])

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대중의 우려와 국가의 안전관리 강화정책으로 기업활동에 있어서 안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하여 사고예방 및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한 투자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.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중대산업사고 원인의 96%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불안전행동을 제어하여 올바른 작업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.

본 연구에서는 국내 6개 기업, 12개 사업장의 근로자 5,349명을 대상으로 조직의 안전문화 수준을 측정하였으며, 불안전행동의 유형 및 발생빈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아차, 잠재사고 12,201건을 분석하였다. 안전문화 수준의 측정방법은 Safety Culture Maturity 모델에 기반을 두고 총 75개의 설문항목으로 측정하였으며, 불안전행동에 대한 분류는 ILO에서 제안한 불안전행동 유형분류표에 의하여 개인적, 업무적, 관리적, 조직적 요소로 구분하여 20개 유형의 세부항목으로 상세화시켜 분석하였다. 본 연구의 결과, 조직의 안전문화 수준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불안전행동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불안전행동의 제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.